

# “넌 봄날의 햇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감동 남기고 종영 '우영우' 명대사

“보호수도 못 되는 주제에 이 팽나무는 얼마나 멋지냐”  
우리 사회가 간과해 온 문제 담담하고 예리하게 풀어

매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로 돌풍을 일으킨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하 '우영우')가 몽클한 감동을 남기고 종영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천재적 두뇌를 동시에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우영우'는 우리 사회가 간과해 온 다양한 문제를 담담하면서도 예리하게 돌아봤다.

우영우(박은빈 분)가 자폐를 가진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을 비롯해 노인, 여성, 영세 자영업자,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드라마 속 명대사를 짚어봤다.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이 '외대생이 죽고 장애인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지진 장애의 무게입니다.”

우영우는 의대생 형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는 중증 자폐인 사건을 맡으며 이같이 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그 삶의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영우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였다”고 언급하며 80년 전 나치의 우리 사회가 다른 게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우영우”는 자폐를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아닌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일깨웠다.

우영우는 자신의 별명을 묻는 최수연(하은경)에게 “너는 봄날의 햇살”이라며 서툰 자신을 위해 최수연이 보인 호의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우영우는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이성인 이준호에게 이별을 고하며 “제가 이준호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호씨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인 것만 같아요”라고 말한다.

“우영우”는 회차별로 다루지는 법정 사건들



을 배경으로 자폐뿐만 아니라 어린이, 탈북민, 동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냈다.

학원 버스를 ‘탈취’해 초등학생들을 야산에 데려간 어린이 해방 총사령관은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나중은 높다. 불안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 너무 늦다”며 학업 부담에 짓눌려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대변했다.

사내 부부 직원들 가운데 아내에게 사직을 권고한 기업의 인사부장은 “아내로서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하겠습니까. 내조는 이럴 때 하는 거죠”라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의 현실을 드러냈다.

도로 개발로 마을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소덕동 이야기’ 에피소드에서는 마을이 장이 “보호수도 못 되는 주제에 이 팽나무는 얼마나 멋지냐. 그렇게 막 밀어버려도, 막 사라져 버려도 괜찮은 그런 동네는 아니다”라며 개발 논리에 파묻혀 보지 못하는 작은 동네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오래 이어져 온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게 했다.

/연합뉴스

# 젊어진 ‘히든싱어 7’

최정훈·영탁 등 출연 ‘히든송’ 첫선  
매회가 특집쇼…故 김현식 편 방송



왼쪽부터 송은이·전현무·조승욱 PD.

10주년을 맞은 JTBC ‘히든싱어’가 시즌7로 돌아왔다. 조승욱 PD는 19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까 고민했는데 큰 틀 자체는 유지하되 매회 특집쇼를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든싱어’는 원조 가수와 모창 가수의 노래 대결을 그리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2012년 처음 방송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조 PD는 “시작은 미미했지만 많은 분이 사랑해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며 “그동안은 4라운드로 진행하면서 노래를 4곡씩 했는데,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서 ‘히든송 무대’를 새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히든송’은 가수가 본인의 노래를 2022년도 감성에 맞게 다시 부르거나 패럴로 참가한 가수들이 선배들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특별 공연이다.

공개된 가수 라인업으로는 가수 박정현, 김민중, 임정화, 고(故) 김현식 등이 있다.

1990년 별세한 가수 김현식의 목소리는 음원에서 따로 추출해 방송할 예정이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가수들도 무대에 오른다. 조 PD는 “예전에는 프로그램보다 연차가 높은 가수분들이 나왔다면 시즌7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이 생긴 이후 데뷔한 분들도 나온다”고 차별점을 짚었다.

2013년 ‘히든싱어2’에 출연해서 가수 휘성을 모창했던 영탁, 2014년 데뷔한 그룹 잔나비의 최정훈 등도 출연한다.

시즌1부터 MC를 맡아 온 전현무는 “제가 프리랜서를 선언하자마자 맡았던 프로그램이라 유독 애착이 있다”며 “‘히든싱어’가 성장하는 걸 보면 저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애정이)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원조 가수를 모시고 음악사에 어떻게 의미 있는 본인조망하고, 이분들을 탈취시킬지 말지 약도 올려야 하고, 방송이 낯선 모창 능력자들이 기가 죽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창자와 원조 가수를 구분하는 연예인 판정단 대표 송은이는 “‘히든싱어’가 한결같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연코 잘 차려놓은 밥상이기 때문”이라며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포맷은 다른 예능은 따라 할 수 없는 노하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우영우 정규직 변호사 됐다...아쉬움 속 해피엔딩 대단원

마지막 회 시청률 17.5%

종방기념 시청자 단체 관람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던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7%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된 '우영우'의 마지막 회 시청률은 17.5%(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구교환이 특별출연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9회 15.8%를 가뭄히 뛰어넘으며 새 기록을 썼다.

“우영우”는 첫 회 0.9% 시청률로 출발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률이 수직상승해 13~14%대 시청률을 유지해왔다.

최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채널의 드라마들이 5%대 시청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다.

18일 밤9시 방송된 '우영우' 마지막회에서는 우영우는 자신의 동복(同腹)동생인 최상현(최현진)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진모 태수미를 설득해 라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될 때가 있지만, 그 자체로도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인정한 우영우는 법무법인 한바다에서도 정규직 변호사로 채용됐다.

“고래캐플” 우영우와 이준호(강태오)도 헤어지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며 해피엔딩을 맞았다.

이날 ENA와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종영을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서울 CGV용산에 마련한 ‘종방 기념 시청자 단체 관람’에는 많은 팬이 몰렸다.

방송을 한 시간 앞둔 오후 8시 영화관 한쪽에 마련된 포토월에는 박은빈, 주종영, 하은경, 강태오, 주현영, 강기영 등 주연 배우들과 유인식 감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시청자들에게 마련된 좌석은 300석. 이벤트에 당첨된 이들은 상영관 앞에 길게 줄을 지어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렸다.

아빠 엄마와 함께 온 초등학교 5학년인 김유준(12)군은 “학교와 학원에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한다”며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하니 친구들이 사진 찍어오라고 했다. 이제 (드라마가) 끝이라니 아쉽다”고 했다.

상영관 앞에는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수족관 돌고래의 방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것처럼, 롯데월드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 벨루가의 방류를 촉구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있는 시청자도 있었다.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소속이기도 한 김나희(44)씨는 “저도 우영우처럼 고래를 좋아해서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며 “이벤트에 당첨돼 온 김에 롯데월드에 올 때까지 벨루가를 방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